

■ 주요 뉴스: 미 연준,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대응("unconditional") 의지 지속 표명

- 미국 경제, 성장둔화 징후 추가 발생(뉴욕 연은, 연착륙 확률 10% 추정)
- 유럽중앙은행(ECB) 노트 정책위원, 수 차례의 빅스텝 지지
- 일본은행(BOJ),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. 성명서에 환율 문구 이례적 삽입

■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하방압력 지속
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강세[+1.0%], 금리 상승[+3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혼조 속 소폭 반등. 주간 낙폭(-5.8%)은 2년래 최대
유로 Stoxx600은 각국 증시 혼조(독일 +0.7%, 프랑스 -0.1% 등) 속 보합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-일 통화정책 차별화 재확인 등으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5%, 2.1% 하락
- 금리: 미국 국채 10년물은 3bp, 2년물은 9bp 상승하는 약세 평탄화 진행
독일은 ECB의 통화긴축 가속화 시사에도 불구하고 5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0.9원, +4.3원) 0.3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6/17일	6/16일	전일대비			6/17일	6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74.8	3,666.8	0.22%	국채 금리 10y	미국	3.23%	3.20%	3bp
	유럽	403.25	402.88	0.09%		독일	1.66%	1.71%	-5bp
	중국	3,316.8	3,285.4	0.96%	CDS 5y	한국	50bp	53bp	-3bp
	일본	25,963	26,431	-1.77%		중국	85bp	89bp	-4bp
	한국	2,440.9	2,451.4	-0.43%	위험 지표	EMBI+	429bp	433bp	-4bp
환율	달러지수	104.70	103.63	1.03%		VIX	31.13	32.95	-5.52%
	유로화	1.0499	1.0549	-0.47%		WTI유	109.56	117.59	-6.83%
	엔화	135.02	132.21	-2.13%	원자재	구리	401.35	410.8	-2.30%
	위안화	6.7167	6.7044	-0.18%		금	1,839.4	1,857.3	-0.97%
	원화	1,287.3	1,285.6	-0.1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 연준,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대응 의지 지속 표명

-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*,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가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FOMC의 약속은 “무조건적”이라는 표현을 사용 * 연 2회 작성, 의회 제출
- 파월 의장,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2%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, 연준의 이중책무(완전고용·물가안정) 달성 능력은 금융안정 유지에서 나온다고 발언
-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(매파), Fed·ECB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과거(80년대)처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·유럽의 연착륙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
-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(비둘기파), 7월 FOMC에서도 정책금리 75bp 인상을 지지할 수 있으며, 장기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“꾸준하게 접근”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통화긴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경제, 성장둔화 징후 추가 발생

- 미국 5월 제조업생산(산업생산의 하위항목)은 예상(+0.3%)과 달리 감소(-0.1%)했으며,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(-0.4%)하며 경기둔화 징후를 발신
- 뉴욕 연은의 경제예측 모형에 의하면, 미국 경제의 연착륙(향후 10개 분기 동안 GDP 성장률_{yoY}이 플러스를 계속 유지) 달성 가능성이 10%에 불과한 반면, 경착륙(향후 10개 분기 동안 적어도 1개 분기는 성장률_{yoY}이 -1% 이하) 가능성은 80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
■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위원, 수 차례의 빅스텝 지지

- 노트 정책위원*(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), 인플레이션율(5월 CPI +8.1%)이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ECB는 여러 번의 50bp 정책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. 향후 수개월 동안의 금리인상 폭은 200bp로 예상한다고 부언 * 9월 50bp 이상의 인상을 지지
- 한편, 최근 ECB 라가르드 총재 등이 유로존 역내 금융 분절화(fragmentation)에 대해 우려의 발언을 내놓은 이후, 남유럽(이탈리아, 스페인 등)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이탈리아·독일 국채금리차(10년)는 6월 중 처음으로 200bp 이내로 축소

■ 일본은행(BOJ), 금번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

- 6/16~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성명서를 통해 수익률곡선 관리(찬8:반1), 자산매입(만장 일체) 등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면서, 환율이 일본 경제활동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이례적으로 삽입
-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,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10년물 목표 금리(현행 0.25%) 인상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BOJ의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수익률곡선 관리를 통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

■ 연준 파월 의장,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

- 파월 의장, 달러화 CBDC를 개발하면 투명성, 법치주의, 중앙은행 독립성 등의 화폐 펀더멘털에서 강점을 지닌 달러화가 국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. 일각에서는 CBDC 진전 시 달러화의 지위를 위안화에 일부 빼앗길 것으로 우려

■ 무디스, 아시아 신흥국 신용위험 확대 경고

- 아시아(일본 제외) 투기등급 기업 중 “B3(부정적)” 이하 신용등급을 부여 받는 기업의 비중이 5월 30.5%를 기록해 전고점(09.5월 27.3%)을 상회했다고 발표. 주된 배경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(최근 9개월 동안 신용등급 강등 91건)

■ 인도 중앙은행(RBI), 정책대응 지연 비판에 반박

-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, RBI가 완화적 조치들을 거두어들이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책대응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“not behind the curve” 강조하면서, 초완화적 통화정책으로부터 순조롭게 벗어나 연착륙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6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산업생산(전월비): +0.2%, 4월(+1.4%), 예상치(+0.4%)
- 미국 5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(전월비): -0.4%, 4월(-0.4%), 예상치(-0.4%)
- 유로존 5월 CPI 상승률(확정치, 전년비): +8.1%, 4월(+7.4%), 예비치(+8.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20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 대출우대금리(LPR), 대만 5월 수출수주 등 경제지표 발표
- 미국 노예해방일(Juneteenth)로 증시 휴장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